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인 아니며,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주일설교

제목: 주께서 판단하십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는 사도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 에베소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며, 육로와 수로로 상업상 교통이 빈번한 곳입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인종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우상도 많았고, 생활은 사치했으며, 윤리적으로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교회의 갈등과 문제에 대한 사도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신자(성도) 사이에 사랑이 없어서 분열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문제의 해결은 신비로운 은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결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주관적 평가와 판단.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3절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을 회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만 본 판단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판단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극단적인 ‘자학’과 지나친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의 ‘오류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타인의 관점에서 본 평가와 판단.

사람은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판단하는 타인의 결산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인생에 대한 마지막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판단에도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해도 좌절할 필요가 없고, 칭찬한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판단.

바울은 4절에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고 말을 합니다. 5절에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라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판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판단의 목적이 칭찬으로 상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일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영생과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요한복음 5:24; 베드로전서 1:7절). 그러므로 우리 ‘좋은이웃교회’ 모든 신자(성도)는 인생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명자로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여러분! 사도바울이 판단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2. 여러분은 교회와 삶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경솔한 판단

고(故) 채필근 목사님이 만주 교회를 두루 살피는 순회 목사로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 시대에는 각 교회에 운영 재정이 낮아서 교회 자체적으로는 교회를 운영 할 수가 없으므로 노회에서 돈을 모아 시골의 작은 교회에 선교부의 돈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채필근 목사님은 이런 임무를 띠고 선교부의 돈을 가지고 시골의 작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나누어 주려고 떠났습니다. 그 때는 통장도 없고 은행도 가까이 없으므로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고 위험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 숙소를 잡기 위해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은 돈을 잃어버릴까 염려되어 독방을 찾았지만 손님이 많아서 합숙방만 겨우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 보니 벌써 누군가가 저만치 누워 있는데, 그 생긴 모습이 마치 도둑놈 같았습니다. 이윽고 밤이 되어 잠 자리에 든 목사님은 돈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만치 누워 있는 사람이 ‘부스럭’ 거리면 목사님은 ‘에헴’ 하고 헛기침을 하여 자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밤을 꼬박 뜯 눈으로 센 목사님이 다음날 아침 그 사람과 같이 밥상을 받은 목사님은 깜짝놀랐습니다. 자신이 밤새도록 의심하였던 도둑놈 같은 사람이 식사 기도를 하는게 아닙니까? 서로 통성명을 하고 보니 그 사람은 어떤 교회의 장로였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내렸던 판단은 얼마나 경솔하고 외형적인 판단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 쉽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는 아닌가요?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THINK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특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깊이 알아갈수록 자칫 판단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판단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요일예배 담당안내					
담당	5월 4일	5월 11일	5월 18일	5월 25일	6월 1일
마을특송	살롬	온유	청장년	임마누엘	무지개
대표기도	김영인 권사	김은경 권사	정미현 권사	정영숙 권사	정주영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5월 1일	5월 8일	5월 15일	5월 22일	5월 29일
본당청소	행복한	섬김	샘솟는	살롬 청장년	온유
중식봉사					

주요광고

- 좋은이웃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혜롭고 성숙하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 월요목양새벽기도회 /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 장소: 3층 본당(마을장,목자,교사,임원 필참)
- 교회 페인트 공사 / 2주간에 걸친 교회 페인트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곳곳에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어린이주일 및 총동원가족주일(성찬식) / 일시: 5월 1일(주일) 오전 9,11시 / 장소: 3층 본당
-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5월 둘째 주(8일)부터 중식과 오후예배가 시작됩니다.
- 교회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goodnborkr).

■ 파워전도대 토요전도 (2시 30분/ 2층 집합).

사랑 나눔 전도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주: 로고스 / 다음 주: 꿈쟁이).

■ 교우소식 ■

- 치유 중보 기도 - 김수차 권사/유수립 권사/김해생 권사/이문형 장로/김진석 집사/
김태인 집사/ 이명옥 권사/한정희 권사/이향숙 사모/유춘자 권사/조병양 집사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거만한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교만이 아니라 경건이다.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_성 이거스틴